

국제비교를 통한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특징 및 향후 과제 분석

이 지 은*

경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개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국제비교하여 두드러지는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문서를 제시하고 있는 6개국(영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일본, 홍콩)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중점사항, 학교급별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공동체 의식, 교과와 심층적 이해, 미래 대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조하였으며, 동일한 교과가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차이점의 경우,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많았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의 비중이 높았다. 다른 국가의 경우,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강조점에 따라 다른 교과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새 교육과정에서 변화를 보인 교과목과 자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국가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교사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때 현행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육과정이 잘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어 : 2022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국가 수준 교육과정, 비교 교육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715)

* 주저자: 이지은/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사/대구 북구 대구로 80

/E-mail: jieunlee@k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문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50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23년을 기준으로 차후 적용될 새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그동안 10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23). 특히 개정되는 교육과정은 새로운 변화가 있기에 교육 현장과 학계에서는 새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중요하며 동시에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chwab(1971)은 일전에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양자 사이의 연결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총론은 문서 그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현장과의 연계성의 측면에서도 자세히 다루어져야 한다.

교육부(2022)에서는 2022년 12월 22일에 새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포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기점으로 1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다음 학년에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학년은 중·고등학교 3학년으로, 2027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더라도 2026년까지는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일부 학년에 운영된다. 따라서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외면받을 수도 있는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사항을 계승·발전시킨 사항도 많기에(교육부, 2022.12.22.)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모두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국내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과 보완도 있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역량과 같이 새로이 신설한 사항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인 동향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총론 문서의 취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두드러지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이 외에도 국제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해외 사례 중 우리와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초·중등 학교교육 구성에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 총론에 중심을 두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총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202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차후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의 새로운 교육과정 내용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강지영, 소경희, 2016; 조용, 홍후조, 2022). 두 번째로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체제 측면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거나 향후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박채형, 2016; 임유나, 2016). 세 번째로 교육과정 총론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있다(김자미, 이원규, 2017; 이지은, 2021).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과정 총론 문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의의를 지니며, 그런 측면에서 총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향후 도입을 앞두고 있기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도 2026년

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기존의 총론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총론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선행연구 유형을 혼합한 방식으로 국제비교를 하여 총론의 특징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후 총론 문서가 나아가야 할 미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타 국가의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각 국가별 특징은 어떠한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어떠한 점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뒤, 향후 시사점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상의 특징과 현장과의 연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총론의 특징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두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과 기능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2.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두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이 타 국가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전략과 방안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 이론적 배경

2023년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4년부터 연차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본 논문의 부록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두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교육과정 총론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를 분석한 뒤 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한 것으로, 2015년 9월 23일에 확정·고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당시 문·이과 이분화 현상과 수능에서의 특정 지식 편중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 교육과정은 2023년 기준 현행 교육과정에 해당되며, 2017년부터 이하와 같이 연차 적용되었다. 마지막 적용 학년인 중·고 3학년의 경우, 2026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2017년 3월 : 초 1~2학년
- 2018년 3월 : 초 3~4학년, 중·고 1학년
- 2019년 3월 : 초 5~6학년, 중·고 2학년
- 2020년 3월 : 중·고 3학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한 사항과 개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9.25.).

신설사항으로는 첫째, 6개의 핵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한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둘째, 세월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과를 신설하였다. 셋째,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재편하였다. 넷째, 중학교에서 학생중심형 수업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다섯째,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수강해야 하는 공통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선택교과도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교과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선택교과에 머물렀던 정보교과의 경우,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여 초·중학교에서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둘째, 기존 교과에서는 다루지 않으나 시대적으로 중요하거나 교과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주제인 범교과학습의 범주를 기존 39개에서 10개로 줄여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이 외에 연극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2022)에서 2022년 12월 22일에 공식적으로 고시한 교육과정으로, 디지털 전환, 환경 및 인구구조의 변화,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이하와 같이 학교급 및 학년별로 최초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어 2027년에 전면 실시된다.

- 2024년 3월 : 초 1~2학년
- 2025년 3월 : 초 3~4학년, 중·고 1학년
- 2026년 3월 : 초 5~6학년, 중·고 2학년
- 2027년 3월 : 중·고 3학년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도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계승하는 형태이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 신설사항과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2022.12.22.).

신설사항으로는 첫째, 기초학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새로이 지

정하여 전 학교 전 교과에서 세 가지 소양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학교 자율시간을 신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과목이나 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셋째, 진로연계교육을 신설하여 초 6, 중 3, 고 3 2학기에 실시하여 상급 학교를 대비하거나 직업 세계를 준비·탐색하게 하고자 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핵심역량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교과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 역량의 명칭을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교체하였다. 둘째,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교과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정보 교과의 시수를 증배하였다. 셋째, 이태원 사건 이후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중밀집 교육을 추가하였다. 넷째,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을 3개 영역(자율·자치, 동아리, 진로)으로 재구조화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입학적응활동을 개선하여 기초한글교육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고등학교 선택교과를 2개(일반선택, 진로선택)에서 3개(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로 다각화하였다. 일곱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보통교과로 편입하여 일반고와 특목고의 분리되어 있던 교과 구분을 일반교과의 범주로 통합시켰다. 일곱째, 고등학교의 편제 시수를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꾸어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최소 수업시수를 감축하였다.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계승하면서도 여러 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개선·발전시킨 점이 특징적이다.

3) 선행연구 분석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본 연구 주제 중 하나이자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는 이하 <표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관련 대표적인 선행연구 현황

주제	선행연구
1) 총론의 기능, 형식, 내용 분석	김종희(2019), 유하라, 이효정(2019)
2) 총론과 각론의 연계성 분석	소경희(2015), 이광우, 정영근(2017)
3) 총론 국제비교	임유나(2016), 김자미, 이원규(2017)
4) 총론의 학교현장 적용 현황 분석	이주연(2019), 정명옥(2020), 이상은, 홍원표(2020)
5) 총론에 대한 대중 반응 분석	강지영, 소경희(2016), 박채형(2016)

선행연구들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범주별 선행연구들의 간략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의 기능과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연구로 김종희(2019)는 교육과정 총론을 기존의 교육과정 총론 문서와 비교하고, 외국과의 비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의 재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하라·이효정(2019)은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총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각 교육과정 개정시기별 통합과 포용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간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탐색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소경희(2015)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주는 쟁점과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총론 개정안이 강조하는 것을 분석한 뒤,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광우·정영근(2017)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에서 총론과 각론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다른 국가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한 연구들도 있었다. 임유나(2016)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핵심역량이 제시된 방식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한 뒤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자미, 이원규(2017)는 일본의 국가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비교·분석한 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총론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이주연(2019)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연수 참여 경험 여부가 교사들의 이해와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정명옥(2020)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의 학년별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현황과 기초 교과 이수 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은, 홍원표(2020)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시수 편성·운영, 선택교과, 자유학기 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다섯째, 총론이 실제 대중매체나 관심 있는 자들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받았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강지영, 소경희(2016)는 주요 일간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세 가지 담론(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 이과 말살 교육과정, 현장과 유리된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박채형(2016)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 3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현장친화적인 교육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이전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국제적 특징이라는 세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 및 모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이 되는 총론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교육부에서는 2022년에 새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기에(교육부, 2022)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차기 2022 개정 교육과정 모두를 중심에 두고, 세 번째 유형의 선행연구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해외의 교육과정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것만이 주요 목적은 아니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를 계승·발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거나 현장에 적용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제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한 사안들 중 일부는 세계적인 동향을 반영하여 새로이 추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국제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OECD(2019)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의 결과와 같이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특징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교육부, 2020.10.22.).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도 이러한 국제비교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맞춤형의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설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문서는 교육부(2015, 2022)의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이며, 국제비교를 위해 그간 우리나라에서 교육제도 개발 시 많이 참고하였으며, OECD(2019)의 PISA 등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이는 국가를 동·서양 모두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비교 대상은 총 6개국으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양권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나 주 수준에서 별도의 교육과정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6개국은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문서를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 분석을 위해 각 국가별로 참고한 교육과정 문서의 목록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문서의 명칭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원어는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문서들은 해당국의 가장 최신의 교육과정 문서에 해당된다.

<표 2> 교육과정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 문서

국가	교육과정 문서
1. 한국	·교육부(2015, 2022) -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총론(2015)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총론(2022)
	·Department for Education, UK. (2013, 2014, 2022) - 영국 국가교육과정: Key stages 1, 2 프레임워크 문서(2013) - 영국 국가교육과정: Key stages 3, 4 프레임워크 문서(2014) - 국가 교육과정(2022)

국가	교육과정 문서
3. 뉴질랜드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15) - 뉴질랜드 교육과정(2015)
4. 호주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20, 2022) - 호주 교육과정의 구성(버전 5)(2020) - F-10 교육과정(버전 8.4)(2022)
5. 싱가포르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1a, 2021b, 2023a, 2023b, 2023c, 2023d). - 초등학교 교육: 미래를 위해 당신의 자녀를 대비(2021a) - 중등학교 교육: 학습의 다음 단계로 자녀를 안내(2021b) - 중등학교 코스 및 교과(2023a) - 교육과정 및 교과(초등)(2023b) - 공동교육과정 활동 개요(2023c) - 프로젝트 작업(2023d)
6. 일본	·文部科學省(2017a, 2017b, 2018, 2021a, 2021b) - 소학교 학습지도요령(2017a)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2017b) -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18) -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 포인트(2021a) - 학습지도 요령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 최적의 배움과 협동적인 배움의 일체적인 충실에 관한 참고자료(2021b)
7. 홍콩	·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 (2017a, 2017b) - 소책자 1: 학교 교육과정의 현재 진행형인 개정(2017a) - 소책자 2: 학습 목표, 학교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및 설계(2017b) ·Education Bureau, Hong Kong. (2022) - 학교 교육과정의 현재진행형인 개정: 초등 교육과정 가이드(파일럿 버전)(2022)

2. 분석 틀 및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목차(교육부, 2015, 2022)를 중심으로 이전 차수와 달리 주요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신설사항이 있는 부분과 핵심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틀을 설정하기 위해 강신복 외(2007),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201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강신복 외(2007: 135)는 교과 교육과정 각론 문서의 목표, 내용, 평가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국의 해당 교과 교육과정 문서와 병치하여 비교하였다.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2019: 48) 또한 학습영역, 일반 능력, 원주민 역사, 학생 다양성에 대한 접근의 네 가지를 범주를 비교 준거로 설정한 뒤, 각 국가의 교육과정 문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상호 비교하였다.

본 연구 또한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국가별 교육과정 문서에서 병치하는 항목들끼리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를 우선 중심에 두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 문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목차(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지원)로 구성된다(교육부, 2015). 이들 중, 개정 시기마다 변화가 있으면서 한 국가의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국제비교의 준거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설정한 분석 틀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교육과정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 틀

연번	분석 틀
1	교육과정의 중점사항
2	초등학교 교육과정
3	중학교 교육과정
4	고등학교 교육과정
5	비교과 교육과정

이상의 다섯 가지 준거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범주이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구분되는 범주들이기도 하다. 특히 다섯 가지 범주는 각 국가별 교육과정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시기별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편, 중·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구분되어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중등학교로 묶여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결과는 동일하게 기술하였다. 비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이외에 학교 시간으로 산정되어 있는 기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상과 관련하여 일부 명칭(안전교육, 범교과학습 등)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명칭이기도 하며, 다른 범주의 경우에도 일대일로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기도 한다. 그 경우에는 타 국가의 문서상의 유사한 명칭이나 항목들로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각 준거 분석 시, 준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에 한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국가명에 매긴 번호는 순서상의 번호이기보다는 고유번호에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교육과정 총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 사용자의 측면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론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Ⅲ. 국제비교를 통한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본 장에서는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범주(교육과정의 중점사항,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교육과정의 중점사항

본 절에서는 국가별로 해당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른 목표로서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강조하며, 어떤 학습자를 길러내고자 하는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의 중점사항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표 4> 교육과정의 중점사항 국제비교 결과

국가	교육과정 문서
	·(2015)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 선택학습, 교과의 핵심 개념, 학습량 적정화,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평가, 목표-내용-학습-평가의 일관성, 산업사회의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
1. 한국	·(2022) 미래 대응능력, 학생주도성, 공동체 의식,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 진로 및 학습 설계,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 성찰, 학생 참여형 수업,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
2. 영국	·학교와 사회에서 종교적·도덕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지원, 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
3. 뉴질랜드	·수월성, 원주민 문화 이해, 문화적 다양성, 포용(성, 민족, 재능 등), 학습을 위한 학습, 지역사회 연계, 학습 내(간) 일관성, 미래 지향(지속가능성, 시민의식, 진취, 세계화)
4. 호주	·사회 참여, 협력,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지식, 이해,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 세계적인 질 높은 교육과정과 평가, 우수한 질, 평등, 투명성, 국가 공동체 의식, 기초 문해력 및 수리력 함양, 미래 대비, 원주민 문화와 역사 이해
5. 싱가포르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전인적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영어와 모국어 학습, 맞춤형 학습(영재, 보충학습, 계열 등)

국가	교육과정 문서
6. 일본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열린 교육과정, 주체적인 깊은 학습, 개별 맞춤형 학습, 협동학습, ICT 활용, STEAM 교육 등의 간학문적 학습
7. 홍콩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문적, 전문적, 직업 발달을 위한 다양화, 특화되었으며 광범위하며 균형 있는 교육과정

<표 5> 교육과정의 중점사항 국제비교 결과 종합

범주	1	2	3	4	5	6	7	계
간학문적 학습						○		1
공동체의식	○		○	○		○		4
과정중심평가	○							1
교과 이해	○		○	○		○		4
교육과정 자율화	○							1
국제시민성			○					2
기초 문해력	○							1
기초역량	○							1
디지털 연계 학습					○			1
맞춤형 수업	○		○		○	○	○	5
문화 이해			○	○	○			3
미래 대비	○	○	○	○	○			5
선택학습	○							1
성찰	○							1
수월성			○					1
실제상황 연계	○							1
전인적 발달		○			○		○	3
지역사회 연계			○			○		2
직무능력	○							1
질높은 교육				○				1
투명성(공정성)				○				1
평등				○				1
학생주도성	○							1
학생중심 수업	○							1
학습 일관성	○	○						2
학습부담 완화	○							1
환경의식			○					1

1. 한국, 2. 영국, 3. 뉴질랜드, 4. 호주, 5. 싱가포르, 6. 일본, 7. 홍콩

첫째, 각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중점을 둔 사항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2개 이상 공통되게 나타난 사항을 빈도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맞춤형 수업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동체 의식과 교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강조되었다.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전인적 발달, 지역사회와의 연계, 학습 일관성도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의 중점사항으로 과정중심평가, 자율화, 기초 문해력과 역량, 선택학습, 실생활 연계, 직무능력, 학생주도성을 현시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강조하고 있었다.

<표 6> 핵심역량(능력) 국제비교 결과

국가	교육과정 문서
1. 한국	·(2015)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2022)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2. 영국	·수리력 및 수학 기술, 언어 및 문해력
3. 뉴질랜드	·생각하기, 언어·기호·글 사용하기, 자기 관리하기, 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하고 기여하기
4. 호주	·일반능력 : 문해력, 수리력, 정보통신기술, 비판적·창의적 사고, 개인적 사회적 능력, 도덕적 이해, 간문화적 이해
5. 싱가포르	·사회정서역량 : 자각, 자기관리, 사회적 지각, 관계 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국제사회에 필요한 21세기 역량 : 시민 문식성, 국제적 지각, 간문화적 능력, 창의적·창조적 사고, 의사소통·협력·정보 능력
6. 일본	·지·덕·체의 균형 잡힌 살아가는 힘 : ① 지식 및 기능, ②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③ 학습을 향한 힘, 인간성

국가	교육과정 문서
7. 홍콩	·공통능력 : ① 기본능력(의사소통 능력, 수학 능력, 정보공학 능력), ② 사고능력(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 ③ 개인적·사회적 능력(자기관리 능력, 자율학습 능력, 협동 능력)

둘째, OECD(2005) DeSeCo 프로젝트와 함께 최근 역량이 강조되면서 대체로 많은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의 <표 6>과 같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서는 역량(competencies)으로서 명칭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비전(vision)으로, 호주와 홍콩, 일본은 능력(abilities)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특별한 명칭 없이 강조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7> 핵심역량(능력) 국제비교 결과 종합

범주	1	2	3	4	5	6	7	계
감수성	○							1
공동체(사회성)	○		○		○			3
국제화					○			1
기여			○					1
도덕성(인성)				○		○		2
디지털 리터러시				○	○		○	3
문제해결	○						○	2
문해력		○	○	○				3
문화 이해				○	○			2
비판적 사고력				○			○	2
사고력			○			○		2
수리력		○		○			○	3
시민성(국민성)					○			1
의사소통(협력)	○		○		○		○	4
자기관리	○		○		○		○	4

범주	1	2	3	4	5	6	7	계
지식						○		1
창의성	○			○	○		○	4
책임감					○			1
체력						○		1
표현력						○		1
학습태도						○		1

1. 한국, 2. 영국, 3. 뉴질랜드, 4. 호주, 5. 싱가포르, 6. 일본, 7. 홍콩

여러 국가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을 빈도 순으로 정리해보면, 의사소통(협력), 자기관리, 창의성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강조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사회성),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 수리력과 같이 기본적인 능력과 사회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성, 문제해결, 문화 이해, 비판적 사고력, 일반 사고력 또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역량이었다. 종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8> 추구하는 학습자상 국제비교 결과

국가	교육과정 문서
1. 한국	·(2015)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2022)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2. 영국	·교육받은 시민
3. 뉴질랜드	·자신감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며 (connected), 여러 일에 활발하게 관여하는 평생 학습자
4. 호주	·자신감 있으며 창의적인 개인, 성공적인 평생학습자, 활동적이고 지식을 갖춘 시민
5. 싱가포르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주도적 학습자, 활발한 기여자, 사려 깊은 시민
7. 홍콩	·가치와 태도 : 인내, 타인에 대한 존중, 책임, 국가적 정체성, 헌신, 통합, 타인에 대한 배려

<표 9> 추구하는 학습자상 국제비교 결과 종합

범주	1	2	3	4	5	7	계
교양(교육)	○	○					2
국민(시민)		○			○	○	3
성공				○			1
자신감			○	○	○		3
자주성(자율성)	○				○		2
적극성			○	○	○		3
창의성	○			○			2
책임감						○	1
평생학습			○	○			2
협력(배려)	○	○			○	○	4

1. 한국, 2. 영국, 3. 뉴질랜드, 4. 호주, 5. 싱가포르, 6. 일본, 7. 홍콩

셋째, 국가별 추구하는 학습자상을 종합한 결과, 이상의 <표 9>와 같이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학습자상을 빈도순으로 정리했을 때,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이나 시민으로 잘 기능하거나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추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자주성과 창의성을 지니거나 평생학습을 향유하며 교육받은 특징을 지니는 것 또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의 경우, <표 10>을 기반으로 먼저 교

<표 10>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국제비교 결과

국가	과목	국어	수학	바슬즐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기타	학습 시간
1. 한국		○	○	○	○	○	○	○	○	○	○	○	-	
학 년 군	1/ 15'	448	256	704	-	-	-	-	-	-	-	-	-	1,408
	2 22'	482	256	768	-	-	-	-	-	-	-	-	-	1,506
	3~4	408	272	-	272		204	204	272	136				1,768
	5~6	408	272	-	272		340	204	272	204				1,972

과목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교과로는 국어(각 국가의 언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이 있었다. 또한 특정 국가에만 존재하는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실생활과 연계한 교과목을 따로 만든 점(우리나라 :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 일본 : 생활)이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특징이었다. 둘째, 영국의 경우, 체육 교과에서 수영을 반드시 포함시킨 점과 외국어 교과를 타 국가의 언어로 한정하지 않고, 영어의 뿌리가 되는 고대어(그리스어, 라틴어 등)도 이 범주에 포함시킨 점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정보교육을 강조하여 오래 전부터 컴퓨팅 교과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점이 주목할 만하다. 셋째, 뉴질랜드에서는 체육 교과가 체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health)이라는 명칭도 함께 포함시켜 단순히 체육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기르기 위한 필요성도 교과목의 명칭을 통해 강조하고 있었다. 넷째, 싱가포르의 경우, 도덕 교과가 인성 및 시민 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의 명칭으로 되어 있었으며, 다문화국가인 만큼 학생들의 출신 국가에 대한 언어도 학습하게 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다섯째, 홍콩의 경우, 사회 교과의 명칭은 '개인, 사회, 인문(personal, social, humanities)'인 점에서 포괄적인 범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과목													학습 시간
	국어	수학	비슬즐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기타		
2. 영국	○	○	-	-	○	○	○	○	○	○	○	○	-	
					역사, 지리		디자인과 기술	수영 포함		예술과 디자인	고어 포함	컴퓨팅		
3. 뉴질랜드	○	○	-	-	○	○	○	○	○	○	○	-	-	
		수학, 통계					기술	보건, 체육		예술				
4. 호주	○	○	-	-	○	○	○	○	○	○	○	-	-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보건, 체육		예술				
5. 싱가포르	○	○	-	○	○	○	-	○	○	○	-	○	-	
				인성· 시민								모국어		
6. 일본	○	○	○	○	○	○	○	○	○	○	○	-		
			생활				가정							
학년	1	306	136	102	34	-	-	-	102	68	68	-	816	
	2	315	175	105	35	-	-	-	105	70	70	-	875	
	3	245	175	-	35	70	90	-	105	60	60	35	875	
	4	245	175	-	35	90	105	-	105	60	60	35	910	
	5	175	175	-	35	100	105	60	90	50	50	70	910	
	6	175	175	-	35	105	105	55	90	50	50	70	910	
7. 홍콩	○	○	-	-	○	○	○	○	○	○	○	-		
						개인, 사회, 인문	기술			예술				
1~6 학년	23% 이내	11% 이내	-	-		11% 이내		5% 이내	9% 이내	16% 이내		4,752		

한편, 시수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학년군(1~2, 3~4, 5~6학년)의 형태로 연간 기준시수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 한 학년마다 기준시수를 제시하였다. 홍콩의 경우, 전체 시수에서 각 교과별 최대 비율을 제시한 점에서 좀 더 자율성을 지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의 세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별도의 기준시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타 국가에 비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위상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2)에서 신설된 학교 자율

시간을 통해 새로운 교과목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한 점은 반대로 단위학교에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중앙집중적 성격과 자율적 성격 모두를 강조하고 있다.

3. 중학교 교육과정

중학교의 경우, <표 11>을 기반으로 먼저 교과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동일하다.

<표 11> 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국제비교 결과

국가	과목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선택/ 기타	학습 시간
1. 한국		○	○	○	○	○	○	○	○	○	○	○	○	
1~3학년		442	510		374		680		272	272	340	170		3,060
2. 영국		○	○	○	○	○	○	○	○	○	○	○	-	-
			역사, 지리	시민 의식			디자인과 기술	컴퓨팅			예술과 디자인	현대 외국어		
3. 뉴질랜드		○	○	-	○	○	○	○	○	○	○	○	-	-
					수학, 통계		기술		보건, 체육		예술			
4. 호주		○	○	-	○	○	○	-	○	○	○	○	△	-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보건, 체육		예술		일 (work)	
5. 싱가포르		○	○	○	○	○	○	○	○	○	○	-	○	
				인성· 시민			디자인과 기술	컴퓨터 응용					모국어, 음식·소비자 교육, 프로젝트	
6. 일본		○	○	○	○	○	○	-	○	○	○	○	-	
									보건 체육					
	1	140	105	35	140	105	70		105	45	45	140		930
학년	2	140	105	35	105	140	70		105	35	35	140		910
	3	105	140	35	140	140	35		105	35	35	140		910
7. 홍콩		○	○	-	○	○	○	-	○	○	○	○	-	
							기술			예술				
1~3 학년		468- 578	413- 551		331- 413	276- 413	220- 413		138- 220		220-276	468- 578		2,534

○ = 필수, △ = 선택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교과는 국어(각 국가의 언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 체육이 있었다. 또한 특정 국가에만 존재하는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선택교과(한문, 환경, 제2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둘째, 영국의 경우, 초등학교 때는 고대어까지 외국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면, 중학교에서는 현대외국어만 포함시켰다. 셋째, 호주의 경우, 선택 교육과정이라는 하나 일(work studies)이란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 세계와 평생학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넷째, 싱가포르의 경우, 중·고등학교가 하나의 중등교육으로 묶이되 3개의 트랙으로 나뉘는데, 이 중 두 개의 트랙에서 컴퓨터 응용에 대한 교과목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컴퓨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과목인 ‘음식·소비자 교육(food and customer education)’ 및 프로젝트 교과가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들은 실용적인 교과와 학생주도적인 교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일본의 경우, 체육 교과목의 명칭이 ‘보건체육’인 점에서 체육에서 보건도 함께 다루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수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준 시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에는 최소에서 최대의 범위를 제시하는 점이 특징적

이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등학교의 교과목을 기준으로 <표 12>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점’을 단위로 하며, 표에 나타나는 수치는 필수 교과의 단위(학점)이다. 교과(군)에 해당되는 교과목의 명칭은 두 시기 모두 동일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는 다른 값의 단위이며, 표에 나타나는 수치는 표준단위시간이다. 홍콩의 경우, 시간에 해당되는 시수이다. 분석대상국을 교과목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필수교과는 국어(각 국가의 언어), 수학 두 개 뿐이었다. 초·중학교와 달리 필수 교과에 해당되지 않는 교과는 선택교과로 편성되어 있거나 혹은 이수해야 할 과목 자체가 매우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국가들은 학생들이 고등학생 시기에는 특정 교과만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를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목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일본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필수 교과가 다양하게 있었지만, 나머지 국가의 경우에는 필수 교과의 수가 매우 적었다.

<표 12>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국제비교 결과

국가	과목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정보	기술 가정	선택/ 기타	학습시간
1. 한국		○	○	○	○	○	○	○	○	○	○	○	○	
	2015	10	10		10	12	10	10	10			16		180
	1~3 단위	6(한국사)												(필수+선택)
학년	2022	8	8		8	10	8	10	10			16		174
	학점	6(한국사)												(필수+선택)
2. 영국		○	△	○	○	○	△	○	△	△		△	○	
			인문	시민 의식			현대 외국어		예술			디자인과 기술	컴퓨팅	

국가	과목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정보	기술 가정	선택/ 기타	학습시간
3. 뉴질랜드		○	○	-	○	○	○	○	○	○	○	○	-	-
					수학, 통계			보건, 체육		예술		기술		
4. 호주		○	○	-	○	○	○	○	○	○	-	○	-	-
						인문, 사회 과학		보건, 체육		예술		기술		
5. 싱가포르		○	○	○	○	○	-	○	○	○	○	○	○	
				인성· 시민							컴퓨터 응용	디자인과 기술	모국어, 음식·소비자 교육, 프로젝트	
6. 일본		○	○	○	○	○	○	○	○	○	○	○	-	
1~3 학년(단위)		20	19		16	26	17	9~11	24	4	6			74
7. 홍콩		○	△	△	○	△	○	△	△	△	△	△	○	
1~3학년		313- 375	선택		250- 313/ 375	선택	313- 375			선택 : 500-750			최소 250	1,625- 2,125

○ = 필수, △ = 선택 / 단위, 학점 : (한국) 50분 수업*17회, (일본) 50분 수업*35회

5. 비교과 교육과정

비교과는 ‘학생 생활 기록부에 등재된 사항 중 교과 및 성적 영역 이외의 모든 영역’으로(우리말샘, 2023), 공식적인 교육과정 문서에서 특정 내용을 학습하는 교과목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과 범교과학습이 여기에 해당된다(교육부, 2015). 이러한 비교과 교육과정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들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비교과 교육과정 국제비교 결과

국가	교육과정 문서
1. 한국	·(2015) 10개 내외의 범교과학습 주제(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금융, 환경·지속가능발전) / 4개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2022) 범교과학습 동일 / 3개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2. 영국	·(초) 관계 및 보건 교육, 종교 교육 필수 ·(중·고) 관계, 성, 보건 교육, 종교 교육 필수
5. 싱가포르	·프로젝트학습, 공동교육과정 활동, 액티브 러닝을 위한 프로그램
6. 일본	·종합학습(탐구)시간 : 협동학습, 디지털 활용 학습, 체험활동(봉사 포함) ·특별활동 : 학급활동

국가	교육과정 문서
7. 홍콩	·유연성(flexibility) : 도덕, 시민, 가치교육, 추가 읽기 시간, 학급시간, 교과보충시간, 기타 학습경험(봉사 등)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교육부, 2015, 2022), 비교과 교육과정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교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시의성을 지닌 10개 내외의 주제들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학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교과 시간에는 하기 힘든 학생 주도적인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수정되어 자치활동도 강조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은 동아리와 진로활동의 하위범주로 통합되었다.

둘째, 영국의 경우(Department for Education, UK, 2014), 학교 교육과정 구성은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공통으로 학습해야 할 교과목과 기타 교육 사항은 문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과 이외에 모든 학교급서 타인과의 관계나 보건의에 대한 교육과 종교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성교육에 대한 교육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 사회, 보건, 경제 교육 등도 제공하면 좋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싱가포르의 경우(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a, 2023b), 의사소통, 협력, 지식 적용, 독립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이를 실제 장면에 적용해보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활동(co-curricular activities)을 통해 클럽, 체육, 그룹, 예술 활동 중 하나를 골라 참여하게 하여 소속감을 기르고 역량 등을 기르게 한다. 그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넷째, 일본의 경우(文部科學省, 2017a),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종합학

습시간과 특별활동이 구성되어 있었다. 종합학습시간에는 학생들이 탐구학습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주체성과 협동성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다. 특별활동은 학급활동으로, 학생들이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자아실현, 문제해결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섯째, 홍콩의 경우(Education Bureau, Hong Kong, 2022; 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 2017b), 교과 이외의 학습에 해당되는 것들이나 교과를 보충하기 위한 시간 모두를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명칭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시간은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습시간의 19%를, 중학교는 8%, 고등학교는 10~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4> 비교과 교육과정 국제비교 결과 종합

범주	1	2	5	6	7	계
개인 탐구활동	○		○	○		3
경제·금융교육	○					1
관계교육		○				1
교과보충시간					○	1
다문화교육	○					1
도덕교육					○	1
독도교육	○					1
디지털 활용 학습				○		1
민주시민교육	○				○	2
봉사	○				○	2
성·보건교육		○				1
안전·건강교육	○					1
인권교육	○					1
인성교육	○					1
읽기 활동					○	1
종교교육		○				1
진로교육	○					1
집단활동	○		○	○	○	4
통일교육	○					1
환경교육	○					1

1. 한국, 2. 영국, 3. 뉴질랜드, 4. 호주, 5. 싱가포르, 6. 일본, 7. 홍콩

국가별 비교과 교육과정을 종합한 결과는 이상의 <표 14>와 같다.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없지만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비교과 교육과정으로는 집단활동, 개인탐구활동, 민주시민교육, 봉사가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교과 시간에는 쉽게 수행할 수 없는 것들로, 학습자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거나 인지적인 요소가 아닌 정의적 요소들과 관련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IV.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6개국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에 두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하 <표 15>와 같이 정리하였다. 다만 본 표에서 나타나는 중점사항들은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특징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국가의 중점사항이라고 하여 해당 내용이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에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명시적으로 빈번하게 강조하는 사항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점사항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15>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징

범주	특징
중점사항	(공통점) ·공동체 의식 함양, 교과외 심층적 이해, 맞춤형 사업, 미래 대비, 학습 일관성
	(차이점) ·우리나라의 중점사항 : 과정중심평가, 교육과정 자율화, 기초 문해력, 기초 역량, 선택 학습, 성찰, 실생활 연계, 직무능력, 학생주도성, 학생중심 수업, 학습부담 완화

범주	특징
중점사항	·타 국가의 중점사항 : 간학문적 학습, 국제 시민성, 디지털 연계 학습, 문화 이해, 수월성, 전인적 발달, 지역사회 연계, 질 높은 교육, 투명성(공정성), 평등, 환경의식
핵심역량 (능력)	(공통점) ·공동체 의식, 문제해결, 의사소통, 자기관리, 창의성
	(차이점) ·우리나라의 중점사항 : 심미적 감수성 ·타 국가의 중점사항 : 국제화, 기여, 도덕성,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 문화 이해, 비판적 사고력, 사고력, 수리력, 시민성, 지식, 책임감, 체력, 표현력, 학습태도
학습자상	(공통점) ·교양(교육), 자주성(자율성), 창의성, 협력(배려)
	(차이점) ·타 국가의 중점사항 : 국민성(시민성), 성공, 자신감, 적극성, 책임감, 평생학습
초등학교 교육과정	(공통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목 동일
	(차이점) ·우리나라의 특징 : 학년(군)으로 기준 시수 제시, 실생활 연계 통합 교과 존재(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타 국가의 특징 : 체육교과에서 보건 및 수영 강조, 고대언어 학습, 컴퓨팅 및 모국어 교과 존재, 미술과 음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강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공통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목 동일, 고등학교의 계열별 분화된 교육과정
	(차이점) ·우리나라의 특징 : 전체 학년 기준 단위/학점 제시, 다양한 선택교과 존재, 타 국가 대비 많은 필수교과 ·타 국가의 특징 : 컴퓨팅, 모국어, 소비자교과 존재, 학생 주도 프로젝트 존재

범주	특징
비교과 교육과정	(공통점) ·개인탐구활동, 민주시민교육, 봉사, 집단 활동
	(차이점) ·우리나라의 중점사항 : 경제·금융교육, 다 문화교육, 독도교육, 안전·건강교육, 인권 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환경 교육
	·타 국가의 중점사항 : 관계교육, 교과보충 시간, 도덕교육, 디지털 활용 학습, 성· 보건교육, 읽기 활동, 종교교육

이상의 표와 같이 다섯 가지 범주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타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 국가별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통점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강조점을 역량이나 미래 대비와 같은 문구로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 두드러지는 차이점으로는 다문화국가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문화나 시민성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단일민족 중심의 동양권인 우리나라, 일본, 홍콩은 그동안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조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업 시간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 교육과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에 비해 다양한 교과나 주제를 필수적으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두루 학습하는 특징이 있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각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제도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상대적 강조점을 참고하여 현 교육을 진단하고 미래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이다. 비록 국가별 특징이 다르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타 국가의 우수한 점 중 벤치마킹할 요소가 있거나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새로이 반영하거나 구체적인 추진안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문화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들의 교육과정 문서를 참작하여 교과목 구성에 변화를 주거나 해당 학생들을 위한 지침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고유하게 강조해야 할 사항은 교육과정 개정되더라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함께 이들의 교육과정 내용상의 측면에서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국제비교를 위해 총 6개국(영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일본, 홍콩)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를 다섯 가지 범주(교육과정의 중점사항,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중점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맞춤형 수업, 미래 대비, 공동체 의식, 교과의 심층적인 이해를 강조하였다. 핵심역량(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의사소통, 자기관리, 창의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추구하는 학습자상의 경우, 협력, 국민(시민)의식, 자신감, 적극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일반적인 교과들은 여러 국가에 걸쳐 동일한 명칭으로 존재하였으나 특정 교과는 서로 달랐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생활을 연계한 교과가

존재하였으며, 동시에 국가에서 각 교과목별 시수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타 국가에서는 컴퓨팅, 모국어, 보건 등 해당 국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을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며, 다양성을 지향하며 시수의 측면에서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교과목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되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여러 가지 선택교과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사항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과가 많은 편이었다. 넷째, 비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공통되는 점으로는 학급활동, 집단활동, 봉사활동 등을 구성한 점이 있었으며, 다른 점으로는 범교과학습 주제라 하여 교과 이외에 학습할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비교과 시간을 통해 학습하기를 기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국가들마다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른 다양성과 특이성에 기반한 서로 다른 교육과정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보다 두드러지는 결과를 통해 향후 국가, 교육청, 학교, 교사 수준에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편제와 관련하여 각 학교급에서의 교과목 구성과 시수를 다시 한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타 국가의 교과목 현황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교과도 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대체로 동일한 교과목이 시대에 따라 큰 변화 없이 계승되어 오고 있는 편이다(교육과정정보센터, 2022). 연구결과와 같이 타 국가에서는 컴퓨팅, 디지털 리터러시, 소비자교육 등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교과들도 있기에 우리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강조하는 사항이나 혹은 미래사회나 세계적 흐름을 대비하여 기존의 교과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

과목의 명칭을 조금 교체해보는 것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교과를 신설하거나 더 이상 적하지 않은 교과를 없애거나 보완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2)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선택 교과에서 새로이 융합 선택 교과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변화는 공통 교과에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자율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문서상으로 과목의 종류와 학년별 성취 기준 정도만 제시하였으며, 이후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구성권은 학교에 이양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교육과정 문서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윤곽을 거의 결정하고, 그렇기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학교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과 기본교육의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의 의사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축소되면 학교에서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2)에서는 새로운 교과목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교사들이 희망하는 자율권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희망하는 자율권이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권인지 혹은 기존의 공통 교육과정 내 특정 부분에서의 자율권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한 뒤 자율권의 초점을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도 국가 교육과정이나 자율권이 부여되었을 때 자율권을 수업에 잘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과정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점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변화나 자율권을 오히려 부정하기도 하였다(이주연 2021: 61). 국가 교육과정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충

분하지 않으며,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책임감 있게 구현해내야 한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신설된 자율권과 관련한 교사들의 마인드셋도 필요하며, 동시에 새로운 것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위해 관련 교수법 등의 현장 연수를 제공하는 등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동 교과 혹은 같은 학교 교사들 간의 전문학습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슬로건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인 만큼, 문서상으로도 그 철학이 그치지 않고 현장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변두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6년까지 운영되며, 본 연구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4년간 더 운영되는 점에서 절대 짧지 않은 기간에 해당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일부는 잘 유지될 것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들은 현장에서 기존 내용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레임덕(lame duck)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주변화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전시킨 것이기도 하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용하기보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새로이 반영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에서 발전시킨 사항이 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 이더라도 해당 사항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적용해도 되는 지침 등을 마련한다면, 현장에서도

더 나은 최신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학 교과와 같이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로 가르치는 내용이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교과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었음에도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세대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 시 큰 폭으로 달라진 사항들은 변화의 논거와 이전 교육과정 시기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사항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보강이나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과 시사점이 있었음에도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를 기준에 두고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에 없는 요소가 해외 교육과정 문서에 있을 경우, 해당 부분들까지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교육과정 문서를 기준에 두고 분석을 한 결과, 각 국가별로 지니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고유성이나 학제 등의 차이점을 반영한 비교를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범위를 좁혀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는 연구를 수행하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의의를 지닌다.

끝으로 미래교육과 미래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총론 문서가 거듭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항들은 실제로 문서상에서만 의미가 있고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문서가 간략한 사항만 제시하다보니 구체적인 결과는 학교와 교사의 의지와 실천에 의존하는 현상이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는 정도는 학교마다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정 대강화의 측면에서 학교에 자율을 주는 장점을 지니지만 반대로 의지가 없거나 실천하는 방법을 모

르는 교사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후자의 측면도 잘 고려하여 총론 문서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신설사항들을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도 예시로서 다른 관련 문서나 책자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적된 역량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 문서에서 더욱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침이나 전략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 총론 문서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인지시켜 학교 현장에서 잘 실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공통으로 지녀야 할 역량이나 태도나 능력을 더욱 잘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초학력이 강조되듯이(교육부, 2022.10.12.), 국가 교육과정 문서도 모든 학생에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복, 이승배, 김원정, 박운혁, 이영국(2007).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체육과학연구*, 18(3), 134-147.
- 강지영, 소경희(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교육과정연구*, 34(3), 1-27.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총론. 세종 : 교육부.
- 교육부(2015.9.2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 교육부(2017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고등학교. 세종 : 교육부.
- 교육부(2017b).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중학교. 세종 : 교육부.
- 교육부(2017c).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초등학교. 세종 : 교육부.
- 교육부(2020.1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PISA) 2018 ‘혁신적 영역(글로벌 역량)’ 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세종 : 교육부.
- 교육부(2022.10.12.). [카드뉴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발표. <https://bit.ly/3JWaMVD>
- 교육부(2022.12.22.).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2023). 홈페이지. <http://ncic.re.kr>
- 김자미, 이원규(2017). 2016년에 공표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구성 분석.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4), 1-14.
- 김종희(2019).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기능과 형식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채형(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교사 친화적 재편—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연구*, 10(3), 25-46.
- 소경희(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이 남긴 과제: 각론 개발의 쟁점 탐색. *교육과정연구*, 33(1), 195-214.
- 우리말샘(2023). 비교과.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49663&viewType=confirm
- 유하라, 이효정(2019). 학습자의 다양성에 대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총론 서술 내용 분석: 제4차~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7(3), 171-197.
- 이광우, 정영근(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

- 론·각론간 연계 양상에 대한 반성적 논의: 국가 교육과정 각론조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5(3), 59-80.
- 이상은, 홍원표(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운영 실태와 시사점 탐색. *교육과정연구*, 38(1), 5-32.
- 이주연(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연수 참여 경험에 따른 교사의 인식 및 실행 차이 분석. *교육과정연구*, 37(1), 191-216.
- 이주연(2021).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실행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과 제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개선 및 학교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팀 (2021). 2022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연구 공청회 자료집(pp. 56-62).
- 이지은(2021). 홍콩의 신(新)학제 교육과정과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비교를 통한 시사점 탐구. *교육과학연구*, 23(1), 1-33.
- 임유나(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제시 방식 검토와 스코틀랜드 ‘Curriculum for Excellence’ 분석을 통한 시사점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143-167.
- 정명옥(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고등학교 적용 현황에 관한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용, 홍후조(2022).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3), 131-146.
- 文部科學省(2017a). 小學校 學習指導要領 (平成 29 年告示) . 日本: 文部科學省.
- 文部科學省(2017b). 中學校 學習指導要領 (平成 29 年告示) . 日本: 文部科學省.
- 文部科學省(2018). 高等學校 學習指導要領 (平成 30 年告示) . 日本: 文部科學省.
- 文部科學省(2021a).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の改訂のポイント.
- 文部科學省(2021b). 學習指導要領の趣旨の實現に向けた個別最適な學びと協働的な學びの一体的な充實に關する參考資料. 日本: 文部科學省初等中等教育局教育課程課.
-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9).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The Australian curriculum and the New Zealand curriculum*.
-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20). *The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5.0)*.
-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22). F-10 curriculum (Version 8.4).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
- 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 (2017a). *Booklet 1: Ongoing Renewal of the School Curriculum* Hong Kong: Education Bureau.
- Curriculum Development Council. (2017b). *Booklet 2: Learning Goals, School Curriculum Framework and Planning*. Hong Kong: Education Bureau.
- Department for Education, UK. (2013).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Key stages 1 and 2 framework document*. UK: Department for Education.
- Department for Education, UK. (2014).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Key stages 3 and 4 framework document*. UK: Department for Education.
- Department for Education, UK. (2022). *The national curriculum* <https://www.gov.uk/national-curriculum>
- Education Bureau, Hong Kong. (2022). *Ongoing Renewal of the School Curriculum: the Primary Education Curriculum Guide (Pilot Version) —*

- Cultivate Values for Leaders of Tomorrow
Create Space to Foster Whole-person
Development. Hong Kong: Education Bureau.
Education Bureau, Hong Kong. (2023). Homepage.
<https://www.edb.gov.hk/en/index.html>
-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 (2015). *The
New Zealand curriculum*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1a). *Primary
school education: Preparing your child for
tomorrow*.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1b). *Secondary
school education: Guiding your child in the
next phase of learning*.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a). Courses
and subjects for secondary schools.
<https://www.moe.gov.sg/secondary/courses>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b). Curriculum
and subjects (Primary).
<https://www.moe.gov.sg/primary/curriculum>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c). Overview
of Co-Curricular Activities (CCAs).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our-programmes/cca/overview>
-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3d). Project
Work. <https://www.moe.gov.sg/education-in-sg/our-programmes/project-work>
- OECD. (2005).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DeSeCo).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definitionandselectionofcompetenciesdeseco.htm>
- OECD. (2019). PISA 2018 Results: Executive
Summaries of Volume I, II & III. Paris: OECD.
- Schwab, J. (1971). The practical: Arts of eclectic.
The School Review, 79(4), 493-542.

투고일자: 2023. 1. 10.

심사일자: 2023. 2. 10.

게재확정일자: 2023. 2. 10.

Characteristics of the 2015 and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Future Task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Jieun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dopted international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present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o explore their future tasks. For this, this paper compared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with those of the six countries (UK, New Zealand, Australia, Singapore, Japan, and Hong Kong) in light of curricular points and goals, school curriculum, and non-subject curriculum. The results find that similar to Korea, other countries also underscore community spirit, deep understanding of subjects, preparation for the future, and tailored curriculum. In addition, there are same subjects among the countries as well. Unlike in the other countri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stipulates many common rules for students, and the percentage of common curriculum is higher. Other countries provide different subjects based on their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oints, and give more autonomy to schools. Based on the resul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recategorizing the subjects and giving more autonomy to schools. In addition, when efforts from both the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and teachers are exerted, the present and future Korean curriculum will function well.

Keywords: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curriculum guideline, national level curriculum, comparative education

부 록

2009,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비교(교육부, 2015.9.23., 2022.12.22.를 재구성함)

구분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인 인재 양성 ○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국민공통교육과정 조정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대학수능시험 제도 개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 ○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 모든 학생이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역량 함양 교육 ○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핵심 역량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인 규정 없이 일부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 부문에 6개 핵심역량 제시 ○ 교과별 교과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성취기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6개 핵심역량 개선: 의사소통역량 → 협력적소통역량 ○ 교과 역량을 목표로 구체화하고 역량 함양을 위한 내용체계 개선, 핵심아이디어 중심으로 적정화 ※ (개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인문학적 소양 함양/역량 함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고 심화선택 ‘연극’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교육 활성화 - (초·중) 국어 연극 단원 신설 - (고) ‘연극’ 과목 일반선택으로 개설 ○ 독서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초소양, 자기주도성, 지속가능성, 포용성과 시민성, 창의와 혁신 등 미래사회 요구 역량 지향
공동 사항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교과(실과)에 ICT 활용 교육 단원 포함 ○ (중) 선택교과 ‘정보’ ○ (고) 심화선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교과(실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교육으로 개편 ○ (중)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 신설 ○ (고)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전환, SW 중심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과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 (초) 실과 +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34시간 이상 편성 ○ (중) 정보과 +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 ○ (고) 교과 신설, 다양한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 신설(데이터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
안전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및 창체에 안전 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교과 또는 단원 신설 - (초1~2) 『안전한 생활』 신설(64시간) - (초3~고3) 관련 교과에 단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으로 개선 - (초1~2) 통합교과 주제와 연계(64시간) - (초3~고3) 다중밀집도 안전을 포함하여 체험·실습형 교육 요소 강화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내외 범교과 학습 주제로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유지 ※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하도록 관련 법 개정

구분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
창의적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체험활동 내실화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개선(3개) -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모든 활동과 연계 가능
NCS 직업 교육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등에 반영 	
공통 과목 신설 및 이수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목 없이 전 학년 선택과목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 ○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 - 진로선택 및 전문교과를 통한 맞춤형 교육, 수월성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 ○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구분 - 다양한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과목 재구조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
특목고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과 심화과목으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과에서 분리하여 전문교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과· 보통교과로 통합(학생 선택권 확대), 진로선택과 융합선택으로 구분, 수월성 교육 실시
고등학교 편성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이수단위 94단위, 자율편성단위 86학점, 총 204단위 ○ 선택과목의 기본단위 5단위(일반선택 2단위증감, 진로선택 3단위 내 증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이수학점 84학점, 자율이수학점 90학점, 총 192학점 ○ 선택과목의 기본학점 4학점(1학점 내 증감가능)
국·수·영 비중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교과(국·수·영·한국사) 이수 단위 제한 규정(50%) 유지 (국·수·영 90단위→ 84단위) 	
특성화고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전문 교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보통교과)과 NCS 교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분류체계 유지 ○ 신산업 및 융합기술 분야 인력양성 수요 반영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 편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영역, 시수 적정화 ※ (시수) 170시간→ 102시간 ※ (영역) 4개→ 2개(주제선택, 진로탐색) ○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수적정화 ※ (시수) 136시간→ 102시간
초등학교 초1,2 수업 시수 증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주당 1시간 증배, '안전한 생활' 신설 -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중심 교육으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초기적응활동 개선 -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실시 ○ 기초문해력강화, 한글해득 강화를 위한 국어 34시간 증배 ○ 누리과정의 연계 강화(즐거우생활 내 신체활동 강화)

구분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
누리 과정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 과정의 연계 강화(한글교육 강화)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개선> 교과교육과정 개정 기본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개념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 - 핵심역량을 반영 - 학생참여중심 교수·학습방법 개선 - 과정중심 평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교육과정 개정 기본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아이디어 중심의 학습량 적정화 - 교과역량 교과 목표로 구체화 - 학생참여중심, 학생주도형 교수·학습방법 개선(비판적 질문, 글쓰기 등) -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개별 맞춤형 피드백 강화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 맥락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소통협력을 이끄는 교과서 개발
지원 체제 대입 제도 및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및 대입 제도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3년 예고제에 따라 '17년까지 '21학년도 수능 제도 확정 ○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연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까지 '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발표 ○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연수 확대